



재미있는 시사프로를 위해 용을 쓰다

방송을 위한 제스처

남 규 홍 PD | SBS-TV세븐 데이즈 제작

SBS 『세븐 데이즈』같은 시사프로그램을 만들다보면 재미와 사실성, 독창성과 보편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용을 써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늦은 일요일 밤 시사프로그램은 현장의 소리와 함께 재미있는 방송을 위한 제스처도 곁들여야 제맛이 나니 이를 위한 편집도 양해하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시청자들이 즐려 못 견뎌할 것 같은 생각에 재미있게 제작하려고 하니 조금은 방송을 위한 제스처가 넘쳐나도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시사프로 들여다보기

나는 시사프로의 제작이 통 유쾌하지 않다. 세상을 뼈뺌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기본자세부터 무언가 뜯어보고자 하는 과잉욕구까지 시사프로가 만들어 가는 삶의 습관들이 문득 문득 무서워진다. 어쩌면 물구나무서서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은 불편함이 당최 못마땅해진다.

그러다 정형화된 틀 속에 위선적인 말들만 온통 쏟아내고 있는 모든 시사프로의 홍수 속에서 함께 소리치는 자신을 볼 때 굉장히 우울해진다. 바보들의 행진 아닐까?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쥐 떼 속의 쥐새끼 한 마리... 그래서 할 때마다 결심한다.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지 말자. 쇼와 진실의 갈등에 서서 망설이는 것도 이 순간이다. 방송을 예술이라고 우기면 무지 웃긴다.

재미와 사실성 두 마리 토끼 잡기

독창성보다 보편성이 우선하는 시사프로에 있어서 잔재주 부리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진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쇼는 어디까지나 그 속에 사실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시사프로가 딱딱하기만 하여 손님을 내쫓을 필요까지는 없을 듯하다. 사실성을 담보로 한 쇼와 진실의 완벽한 조화는 시사프로의 신기원이 될 것 같은 환상도 보인다. 매번 에베레스트 첫 깃발 꽂는 마음으로 땀을 쥐어짜다 보면 시사 프로에도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그나마 그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는 게 통 유쾌하지 않은 시사프로의 제작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다.

재미있는 프로 위해 용을 쓰다

재미있는 시사프로를 위해 용을 쓰다보면 그래도 밥값은 한 것 같고 주변에서도 속으로(?) 욕을 안할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든다. (살아남기 위한 현대인의 처절한 생존전략에서 드러내놓고 동료를 욕하는 인간이 몇이나 될까?) 이것이 내 뼈막한 성품 때문인지 아니면 난 똑바로 서 있는데 세상이 뼈막하게 기울어져 돌아가는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 시사프로의 제작태도는 그렇다. 그래서 조금은 방송을 위한 제스처가 넘쳐나도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장의 소리 담기와 제스처 곁들이기

신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정책을 따져보는 아이템을 준비했었다. 이미 뒷북치는 아이টে姆에 뽀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책상머리에서 끄적이는게 아닌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담아보고자 했다. 40년 출산율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성우가 읽거나 통계청 공무원 누군가가 브리핑해야 했지만 그러면 늦은 일요일밤 모두 졸려 못 견뎌할 것 같았다.

성적인 코드와 야릇한 제스처로 성강의를 명쾌하게 해주었던 개그우먼 성향을 가진 과학강사 장하나가 하면 정보도 주고 재미도 주게 되지 않을까? 물론 성과는 재보지 않았지만 시사프로에서 시도해봤다는 것만으로 만족이다. 도시인의 썰죽맞은 반응보다는 시골 아주머니의 투박한 한탄이 호소력 있을 것 같아서 그 쪽에 귀를 쫓긋한 것도 다 재미를 위한 장치이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 명의 의사와 공무원에게 물어본 것도 과감히 재미없는 답변을 한 사람은 탈락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고백한다. 이 자리를 빌어 편집에서 삭제된 분들에게 용서와 양해를 바란다.

